

‘역사상 가장 위대한 25가지 바롤로 중 하나’

미켈레 끼아를로 바롤로 체레퀴오 DOCG

Michele Chiarlo Barolo, Cerequio DOCG



지역	이탈리아 > 피에몬테 > 바롤로		
포도품종	네비올로 100%		
알코올	14%	용량	750ml
등급	DOCG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야생 베리, 장미, 바이올렛의 아로마에 감초, 베이킹 스파이스, 타르 등 스모키한 향이 복합미를 더하며, 바롤로 특유의 발사믹 비네거 노트와 민트 향이 흥미롭다. 입 안에서는 새콤한 체리와 크랜베리 같은 과일에 아니스, 허브 등이 주를 이루며, 실키하고 정제된 탄닌감이 와인의 우아함을 잘 뒷받쳐 주고 있다.		



제품설명



와인들의 왕이라 불리는 바롤로는 피에몬테 지방 내 11개의 작은 마을에서만 생산된다. 부르고뉴의 그랑크뤼 빈야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바롤로에도 70여 개의 싱글빈야드가 있는데 “체레퀴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1등급 ‘크루 (Cru)’ 중 하나이다. 90년대 중반, 바롤로의 싱글빈야드 체계가 막 자리잡을 때쯤 세 명의 바롤로 전문가에 의해 등급이 매겨진 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분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단 세 곳의 싱글빈야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체레퀴오이다. 또한 바롤로 생산자들은 보통 그들의 양조 방식에 있어 전통주의자와 모더니스트로 나뉘어지는데, 미켈레 끼아를로는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각각의 장점들만 취합하여 가장 조화로운 맛을 내는 바롤로를 생산하고 있다. 덕분에 끼아를로의 바롤로 체레퀴오는 매년 저명한 평론 매체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가장 권위 있는 와인 평론 매체인 감베로 로쏘에 의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25가지 바롤로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수확량을 대폭 제한하여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포도만을 사용하고 3년 이상의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친 후에야 만나볼 수 있는 미켈레 끼아를로의 바롤로 체레퀴오는 정교하고도 우아하지만, 동시에 2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훌륭한 프리미엄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9빈티지 디켄터 Decanter 95점
 2019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4점
 2019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5+점

와이너리



1950년대부터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양조해 온 미켈레 끼아를로는 가야, 안티노리와 같은 그란디 마르끼의 주요 일원이다. 처음으로 이탈리아 와인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던 1세대 수출 와이너리로서, 현재까지도 피에몬테 No.1 수출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바르베라 다스띠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들의 탑 싱글 빈야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부띠꼬 와이너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과 가격 대비 최고의 품질로 와인 애호가들의 니즈와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프리미엄 퀄리티의 피에몬테 와인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하에 이탈리아 DOC 법이 생기기도 이전에 자체적으로 현재 법규 수준 이상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시행해왔으며,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양조 기술을 도입한 생산자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